

Pentaerythritol 수급타이트 심화

Di- 및 Tri- 플랜트 4-5개 불과 ... 2005년 전체수요 40만톤 수준

앞으로도 Di- 및 Tri-Pentaerythritol 분야가 세계 Pentaerythritol 시장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세계 Pentaerythritol 수요는 2000년 약 35만톤에서 2005년 약 40만톤으로 연평균 약 2.5% 증가하고 서유럽, 미국, 일본 및 기타 아시아 지역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최대 소비분야인 Alkyd Resin 코팅은 전체 수요의 약 60%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합성 Aliphatic Ester가 12%를, 합성 Rosin Ester가 11%, 기타 분야가 17%를 차지하고 있다.

Pentaerythritol은 일반적으로 단일 플랜트의 생산능력이 5000-3만6000톤으로 세계 총 생산능력은 약 50만톤에 달하며 주로 서유럽, 북미 및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.

2000년 세계 Pentaerythritol 생산량은 약 35만5000톤에 달했으며 가동률은 평균 70%대를 기록했다. 그러나 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생산능력 과잉으로 인해 약 50%대의 낮은 가동률을 나타냈다.

Perstorp은 세계 최대의 Pentaerythritol 생산기업으로 미국, 이태리, 독일 및 인도에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능력이 총 10만톤에 달한다. Degussa AG 및 Celanese가 각각 2위, 3위를 차지하고 있다.

세계 Pentaerythritol 시장은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연평균 2%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. 아시아 시장은 생산 및 수요에 있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, 북미 및 서유럽 등 선진국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.

또 고그레이드 열저항성 코팅, 항공기 및 자동차 윤활유(Lube Oil)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Di-Pentaerythritol 및 Tri-Pentaerythritol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.

그러나 세계적으로 Di- 또는 Tri-Pentaerythritol 상업 플랜트는 4-5개에 불과해 생산량이 극히 미미한 반면,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급타이트가 심화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4/05/27>